



유럽연합(EU)과 디지털통상 규범 및 협력 논의

- 10.15(화) ~ 10.17(목), 서울에서 제6차 공식 협상 열려
- 한-EU 간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등 규범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는 10.15.(화)~10.17.(목) 간 서울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제6차 디지털 통상 협정(DTA)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EU 무역위원회 계기 합의한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원칙('22.11월)에 기반해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마련을 목표로,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5차례 협상*을 개최하였다.

* 1차('23.12월, 브뤼셀), 2차('24.2월, 서울), 3차('24.3월, 브뤼셀), 4차('24.7월, 서울), 5차('24.9월, 브뤼셀)

이번 제6차 협상에서는 그간 협상 결과를 토대로 조항별 논의를 지속하여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유럽연합(EU) 디지털 통상협정은 거대경제권인 EU와의 디지털 통상 규범을 업그레이드 함으로써 양국 간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및 협력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책임자	과 장	고장원 (044-203-4880)
	디지털경제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박성배 (044-203-488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 디지털 통상이란, 인터넷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한 상품·서비스·데이터 등 교역 및 이와 관련된 경제주체 간 초국경적 활동 전반을 의미

구분		디지털 전환 양상 예시 (통신·데이터 기반으로 변화)	
산업	제품	가전제품, 자동차	⇒ IoT 가전, 커넥티드카
	서비스	의료, 교육	⇒ 원격의료, 온라인강의
	디지털제품	S/W CD, 영화/음악 DVD	⇒ 인터넷 실시간스트리밍
	新산업	(不存在)	⇒ 플랫폼, 클라우드
↓		↓ 산업 변화 반영	
무역·통상		(거래방식) 오프라인	⇒ 온라인(전자상거래)
↓		↓ 통상 변화 반영	
통상 규범		WTO GATT/GATS, RTAs	⇒ 디지털 통상규범 ㅊ

□ 인터넷 보급의 확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 상거래에서도 새로운 거래방식과 거래대상이 출현

○ 무역 방식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고, 산업 변화에 따라 국경간 디지털 제품·서비스 거래, 데이터의 이동이 급증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

구분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전자적 전송물(예: 음원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보장
	전자인증·서명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거래 당사자간 전자인증수단 상호 합의 보장
	종이없는 무역	전자무역행정문서에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기·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구축·유지, 소비자 보호 기관간 협력
	스팸 메시지	스팸메시지 방지·최소화 조치 및 구제수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국경간 정보 이전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국경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 허용
	컴퓨팅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사업수행의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소스코드·알고리즘	SW의 수입·유통·판매·사용 조건으로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암호화 ICT 제품	암호화된 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 조건으로 암호기법 이전·접근을 요구하거나 특정암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공개 정부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데이터 공개 노력	